

# 해남군 우수영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내년 개통

### 총 길이 960m, 해남 우수영 관광지~진도 녹진타워 노선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해 9월 명량대첩축제 전 개통 계획

명량대첩의 현장, 해남 우수영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가 내년 개통한다.

총 길이 960m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노선으로 10인승 곤도라 26대가 투입된다.

소요 금액은 350억원으로 (주)울돌목해상케이블카에서 전액 민간투자하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 9월에 열리는 명량대첩축제 전 본격적인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올 5월 공사 착공후 현재 공정률 23%로,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 1천854㎡(지하 1층, 지상 3층)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타워 일원 504㎡(지하 1층, 지상 1층)에 승강장 등을 건립하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지인 명량해협은 해남과 진도의 경계를 흐르는 길이 2km의 수로이다.

유속이 빠르고 바다가 거칠어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해 울돌

목이라고 불린다.

특히 물살의 속도가 최대 11노트(시속 22km 안팎)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바다로,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회오리 바다'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및 스카이워크, 인문학 하우스 조성 등 우수영권 관광개발사업과 맞물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진도와 패키지 관광 콘텐츠 개발로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명현관 군수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거센 물살로 유명한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돼 스릴있고, 액티비티한 해상케이블카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통합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고흥군은 지난 16일 중국 유통 업체 JHE GLOBAL사와 고흥유자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청년·여성기업 등 소기업의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제공

## 고흥유자 소기업, 중국 대형 온라인시장 진출

### 중국 웨이디엔 200만달러 임점...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6일 중국 유통 업체 JHE GLOBAL사(대표 이문걸)와 고흥유자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청년·여성기업 등 소기업의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에 맞춰 지난 7월 미국 아마존 임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고흥군과 JHE GLOBAL사는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의 모바일

일 쇼핑 플랫폼 웨이디엔에 유자차, 유자주 등 고흥유자 관련 4개 품목 임점을 시작으로 수산물, 농산물가공식품 등 다양한 신규 품목과 업체를 발굴해 임점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점 품목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 2년간 고흥농수특산물 200만달러 매출을 목표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옥(농부누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 온라인마켓에 임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제품개발에 힘써 더 좋고 많은 제품이 임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유자의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시장이 사드배치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수출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유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흥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국내 온라인 프로모션 확대(11번가, 우체국쇼핑 등), 미국 아마존 임점, 신규시장 바이어 판촉활동비 지원 등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이문석 기자

## 완도군,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재도약 준비

###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충무공 유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원화 사업과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고금면 충무리 묘당도 일원에 85억 원의 사업비로 충무공 이순신 전사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 조성, 관광요재건 등을 추진한다.

묘당도 일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역사적인 곳으로 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묘당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및 이순신 유적 순례 코스를 개발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면 덕동리와 운동리 일원에는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3년까지 4년에 걸쳐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이가 이끄는 조병 연합수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현장을 관광과 접목한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봉수대, 활터를 재현하는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 깃별 생태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어촌체험 자원화, 역사 돌레길과 어울림·해안길 관광을 조성하는 역사공원길 조성 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와 가리포진 등을 연계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우리 군이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및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백내영 기자

## 진도군, 겨울철 별미 청정 돌김 위판 '시작'

### 120kg 한망 평균 15~17만원 거래, 4천500만 원 위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바다에서 자란 겨울철 별미인 '돌김'이 지난 13일 진도군 고군면에서 수확과 위판을 시작했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고군면 회동 위판장 물양장에서 실시된 위판에는 32t의 물김을 위판했으며, 120kg 한 망에 평균 15~17만원에 거래돼 4천5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산 첫 햇김은 진도군 고군면 일대 김 양식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 구불하다고 해 일명 '곱창 김'으로 불린다. 곱창 김은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12월초까지 수확이 예상된다.

진도군의 2021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

4천813ha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7만7천t의 김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위판고가 1천여억 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지난해 6만7천72t을 생산, 756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김 육·해상 채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이현일 기자

## 보성군,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보성군에서 만든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 4만여 명의 보성군은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고양시 등 10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BS삼총사'는 보성군 대표 특산물인 녹차, 꼬막, 키위를 형상화해 캐릭터로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착한 캐릭터'로 보성군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전문 기관 캐릭터 개발 용역을 거치지 않고, 보성군 홍보팀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해 디자인 비용 300만 원 만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슈가 됐다.

역대 최다 지자체(63개)가 참가한 이번 '우리동네 캐림픽'에서 보성군은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며 슈퍼루키로 떠올랐으며, 본선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중심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등 중소자치단체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캐릭터 축제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 장흥군의회, 찾아가는 의정활동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에서 군의회는 유치 용문 풍력발전 시설사업, 노력형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지사업,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폰합공간 조성사업 등 13곳의 주요 사업장을 찾아가 담당공무원과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다수 민원 지역인 용산 친환경 스마트김 육상종자 생산시설사업 중단 현장을 방문해 폭우 시 토사유실과 산사태 위험성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금금증을 대신 해결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